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사례집

“우리 동네 돌봄수요는 우리가 채워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 사례집은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시범사업 대상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내용이 작성됨에 따라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이란?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경기도 오산시	초등 돌봄 건강한 급간식 지원사업	08
경기도 광주시	뇌질환자 통합돌봄서비스	14
경기도 고양시	고양 해피케어	19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이소파트너사업 1인 가구 사회적관계 향상지원	24
서울시 마포구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	29
대전시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34
경기도 파주시	장기입원 퇴원환자 돌봄체계 구축「더 나은 돌봄」	39
전라남도 장흥군	해피케어-해피콜서비스	45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50
서울시 노원구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지역통합돌봄	55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돌봄형 지역관리기업, 영등포 생활공작소	62
서울시 중구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67
인천시 미추홀구	우리마을 C.C.(child Care)	72
광주시 광산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공동체 ‘광산형 영구임대 늘행복 건강밥상’	77
광주시 북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 공동체 만들기 〈다(多)가치(같이)돌봄〉	82
세종시	‘여민쿵(與民Coop)’ 활성화 프로젝트	87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이란?

“주민참여 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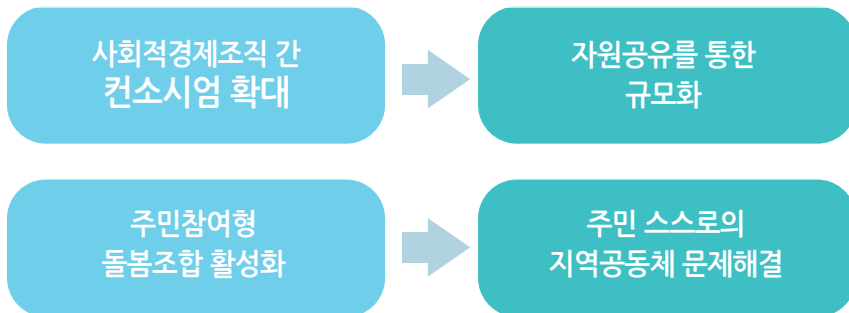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발표(2020.12.28., 관계부처 합동)

사업배경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 급증
-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 필요

사업목적

-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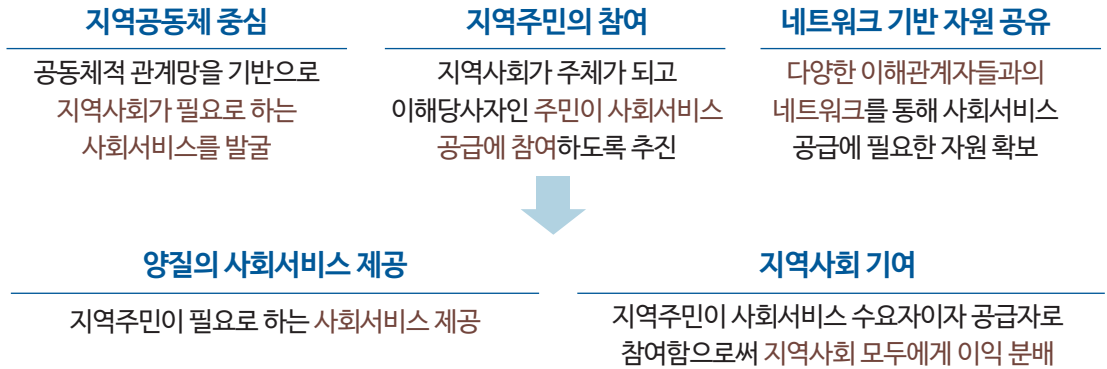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연대·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음

※ ‘사회서비스’란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한국은 모든 계층에서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계층양극화 고착, 가족해체 등과 같은 신사회적 위기가 확인되므로 써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보편적 복지(사회안전망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의 영리와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취약계층 중심에서 서비스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서비스의 내용도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되었음

왜 사회서비스분야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할까요?

▶아래 3가지 사회적경제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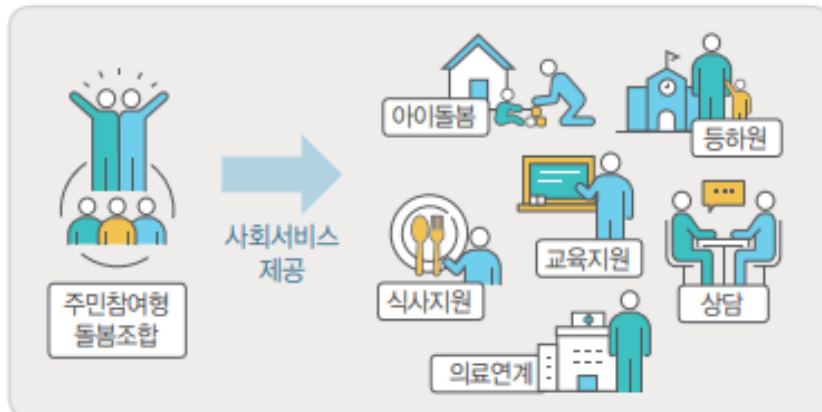
1.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2.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주민 조합을 구성하여 필요한 틈새돌봄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연계협력 (컨소시엄)

경기도 오산시	초등 돌봄 건강한 급간식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	뇌질환자 통합돌봄서비스
경기도 고양시	고양 해피케어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이소파트너사업 1인 가구 사회적관계 향상지원
서울시 마포구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
대전시 대덕구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경기도 파주시	장기입원 퇴원환자 돌봄체계 구축「더 나은 돌봄」
전라남도 장흥군	해피케어-해피콜서비스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 케어-팜
서울시 노원구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지역통합돌봄

초등 돌봄 건강한 급간식 지원사업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19년~2021년(3년차)
지자체명	경기 오산시
대표기관	오산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기관	로댐카페협동조합, 잔다리마을공동체농업법인, 전통햇살협동조합, 오앤오퍼티협동조합, 경기수공예협동조합
서비스 대상	함께자람센터(온종일돌봄센터) 초등 아동
서비스 내용	함께자람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 식생활교육

오산시 초등 아동 온종일 돌봄을 시작하다

오산시는 아동 인구수가 20%로 전국 평균 16%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최근 3년간(2016~2018) 초등학생 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오산시는 2018년 관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실태 및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생의 3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의 아동이 일시 또는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2018년 온종일돌봄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온종일돌봄 함께자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함께자람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함께자람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하면 오산시가 시설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비롯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로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오산시는 아이, 부모, 마을이 함께 자란다는 의미의 다함께돌봄센터인 함께자람센터를 지금까지 17개 개소했고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산 사회적경제협의회는 2019년부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시설인 함께자람센터에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급·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오산시 마을기업 잔다리마을공동체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보고 해당 서비스를 오산 사회적경제협의회에게 추진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온종일돌봄센터의 경우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은 지원되나 급·간식 비용은 센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센터 운영자들이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급·간식 제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풀무원 등 대규모 급·간식 업체를 통해 제공되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이미 개소한 2개의 함께자람센터 역시 센터 운영자들이 간식 제공 업무를

말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만든 간식 제공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함께자람센터는 안정적인 급·간식 공급처 확보로 센터 운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먹거리 관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는 오산시 아동복지과(온종일돌봄사업 담당), 일자리창출과(사회적경제 담당)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 담당 부서의 역할 및 부서 간 협력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먹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 돌봄센터 아이들 급·간식 제공의 길을 열다

오산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함께자람센터 급·간식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마을기업인 전통햇살협동조합, 로댐카페협동조합, 잔다리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인 오앤오퍼티협동조합, 경기수공예협동조합 5개가 신청하여 사업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그에 따른 역할 분담도 명확했기에 사업 실행을 위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협력 시스템도 빨리 자리잡을 수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자람센터 1,2호점이 있었고 3호가 오픈할 즈음이어서 센터장 및 학부모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의 급·간식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급·간식 시식회 및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는데, 건강한 재료를 활용한 수제 간식이라는 것에 학부모들의 인식 및 반응이 좋았다.



간담회



급간식 시식행사

식생활교육 및 급·간식 서비스를 시작하다

2019년 함께자람센터 3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오산시 및 센터,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학기 중에는 간식을, 여름 및 겨울 방학 중에는 급식(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사업 첫 해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구체적인 역할분담,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 센터 및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 등 사업준비에 집중했고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은 1~2월까지만 공급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었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었기에 2021년 들어오면서 가능한 선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센터 등과 협의, 급·간식 서비스 공급을 진행해오고 있다.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 콩나물 재배 키트

간식 제공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로템카페협동조합, 오앤오퍼커피협동조합이 역할을 분담하여 수제 간식을 만들고 각 센터에 일정한 시간에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수제 간식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 및 만족도가 높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간식을 먹는 아이들의 수에 변동이 오고 급기야 간식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기존 인스턴트 간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이기에 건강한 재료, 정성이 들어간 수제 간식이라 하더라도 그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제 간식에 대한 인식이 좋았던 부모들마저 아이들이 간식을 남기는 것보다는 잘 먹기를 원하게 되었고 고민하다가 기존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절충안을 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한 재료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버릴 수는 없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의 성분, 몸에 미치는 영향 등 먹거리에 대해 아이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각 센터를 방문하여 체험을 통한 식생활교육을 했는데 아이와 부모 모두 몰랐던 식품의 감춰진 진실을 흥미로워했고 식재료를 선택하고 음식을 먹을 때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센터에서 대면으로 진행이 어려워 작년에 제작해놓은 식생활교육 동영상 및 식생활 키트를 센터와 가정에 제공해 식생활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회적경제, 연대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아동 먹거리 제공을 꿈꾸다

올해는 경기도 코로나 4단계 연장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간식 이용 또한 급격히 줄었다가 9월이 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급식은 방학 중에만 제공되는데 처음에는 바트 형식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 도시락 형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급·간식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배송인데, 모든 센터가 거의 동일한 시각에 급식 및 간식을 먹어야 하므로 음식의 부피, 온도 등을 고려해 배송하는게 가장 힘들고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람찬 순간들도 있다. 아동돌봄시설의 아이들에게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던 식생활교육, 국내산 재료를 활용한 급식 및 수제 간식 제공 시도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 건강한 급·간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통해 센터 및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성과였다.

그리고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급·간식 제공 서비스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내 다양한 아동 또는 돌봄 관련 기관들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확장 준비도 시작하였다.



간식 메뉴 개발 컨설팅



간식 레시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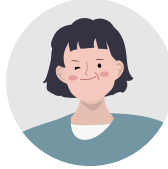
올해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제 간식이면서 아이들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간식 메뉴 및 레시피 개발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컨설팅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였다. 내년 함께자람센터가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 수량 증가에 따른 공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특히 배송 시스템과 서비스의 적정한 비용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그리고 식생활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 등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물론 앞으로의 과정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진 자원과 역량, 지역 네트워크망 그리고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업 후기

[로DEM카페협동조합]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라 어려움도 많았으나 아동돌봄시설에 급간식 서비스 제공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과 그로 인한 수익 창출, 비록 파트타임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것에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아동 간식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 같고 먹거리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간식 배송으로 인해 사고의 부담은 있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기업 매출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17개 함께자람센터 및 시 아동청소년과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간식 및 급식을 먹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뇌질환 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19년~2021년(3년차)
지자체명	경기 광주시
대표기관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구성기관 (2021년 기준)	라이프헬스케어 협동조합, (주)홈케어마스터, 진이찬방, 가온나르샤, (주)클린시티, (주)맥스톤스포케어
서비스 대상	만19세~만65세 미만 뇌질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운동재활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정리수납) 주거환경개선서비스(소독방역, 매트리스케어, 낙상방지 설치 등)

지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견

경기도 광주시는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년간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사회서비스 인프라는 인구 증가속도만큼 구축되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은 인근 지역인 성남, 하남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8년, 지역의 청년들이 설립한 라이프헬스케어 협동조합(생활체육, 운동재활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수행)은 지역사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프라에 주목 했다. 특히, 지역에서 운동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뇌혈관 질환자가 퇴원 이후 정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운동재활시설이 지역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본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확장되고 있는 반면,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뇌혈관 질환자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65세 미만에서 발병율이 증가하는 상황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경제와 협력 자원을 모으다

지역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광주시 복지정책과와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상자(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뇌혈관 질환자)와 문제(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한 뒤,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지역의 100여개 사회적경제조직 중,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함께 해결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재활, 반찬배달, 방문요양, 소독방역 및 낙상방지용품 설치 등 4가지 주요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소재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서비스 기관 등과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65세 미만 뇌혈관 질환자의 신체기능 향상 등을 통한 신체·정서적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였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SRC재활병원, 웰케어코리아, 참조은병원 등 재활 및 작업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서비스 과정에서 놓칠 수 있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해나가기 시작했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각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달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과정을 설계했다.

첫해의 사업을 통해 얻은 깨달음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해결하는 대안적 경제로서, 비즈니스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첫 해의 사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물론, 공적서비스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패를 보완했고, 영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보완했으나, 적절한 수익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첫 해의 사업을 분석한 뒤, 몇 가지의 개선점을 발굴했다.

먼저, 기존 중위소득 170%이하로 한정하였던 대상층을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고, 소득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변경했다. 둘째, 패키지 형태로 통합지급되던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운동재활,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 및 환경개선)와 추가 서비스(10종)로 구성을 변경하였고,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추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셋째, 읍면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여, 지역 내 재활병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홍보방식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언론보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광주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속가능성의 희망을 보다

2019년에 비해 한층 더 개선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짧아진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76명의 누적 고객을 대상으로 약 500만원 가량의 유료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유료고객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여, 사회적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기관들은 사회서비스를 단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고객 중심 서비스이자 비즈니스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었고, 코로나 19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등 고객의 필요와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병원 방문이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운동재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운동재활에 대한 뇌혈관 질환자들의 수요를 확인했고, 이에 본 사업의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하여 향후 전략 수립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광주시 복지정책과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광주 시민에게 주는 효과를 직접 체감한 뒤, 주요 서비스인 운동재활서비스를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시군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하여

2년차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사업을 변경하였으나, 사업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한차례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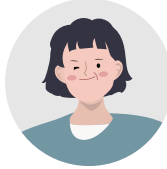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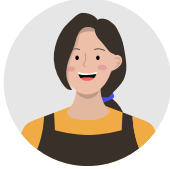
먼저, 뇌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를 초로기 치매 등을 포괄하는 뇌질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장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용 시장을 폭넓게 구축했다. 둘째, 자부담 비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현실화하여, 취약계층부터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지불가능한 수준의 비용구조를 설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셋째, 전년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호도 및 필요요성 등을 검토하여, 만족도가 낮거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서비스는 재구성하여, 새로운 사회

적경제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었다. 또한 가장 필요성이 높은 운동재활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그 외의 서비스를 선택 서비스로 구조를 재차 변경하여 ‘뇌질환자의 기능회복’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체 브랜드(희망벙글)를 개발하여, 이용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고객관계관리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어느덧, 사업을 시행한지 3년차가 되었고, 당초의 계획대로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은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3년간의 과정은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확인하고, 지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해 매진한 시기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비즈니스 역량과 품질은 한층 강화될 수 있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워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직 완전한 자립까지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3년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 가능성으로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미래의 광주시를 꿈꿔가고 있다.

사업 후기

[경기 광주지역자활센터]



광주시의 뇌질환대상자 통합돌봄서비스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보건복지분야가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미만 뇌질환 대상자를 찾아내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광주시의 경우 재활치료병원의 부족과 이에 따른 재활 치료의 어려움 또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적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광주시는 본 사업의 기본 구조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료대상자를 찾아내고, 이들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뇌질환 대상자의 일상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 향상,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몇 가지 사항을 꼽자면, 서비스 장기화를 위한 유료대상자 발굴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 사회적경제조직 및 고객들과의 서비스 연계·서비스 관리 등에서 투입되었던 시간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이 어느덧 3년에 다달았고, 서비스 만족도와 질 평가 등에서 사업 자체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서비스 자문을 해주신 자문위원단, 서비스 제공기관, 기타 복지서비스 기관 등 모든 자원과 기관들이 모여 시민의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이를 수 있었던 사업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해 뇌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안녕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가 지역사회 안에 스며들기를 기원한다.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경기 고양시

고양 해피케어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19년~2021년(3년차)
지자체명	경기 고양시
대표기관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성기관	국립암센터, 해피에이징, 위드메이트, 갓피플, 올리브앤제펫토, 대창
서비스 대상	고양시 거주 암환자 중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낙상 고위험군
서비스 내용	낙상방지 용품설치, 이동서비스, 깔고미서비스, 정서돌봄서비스

국립암센터의
사회적가치를
위한 노력

경기도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인구 규모에 걸맞게 다양한 생활문화 인프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의료보건영역에서는 2000년에 설립된 국립암센터가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암환자 치료부터 치료 방안 연구, 국가 암 정책 개발 및 수립, 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암 전문 국가 기관이다.

암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인 국립암센터는, 2018년 고양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암환자들이 건강한 사회적경제 주체로 일어서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유방암 환우들이 암환자에게 필요한 수제비누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암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다.



암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

과거와 달리, 사전 검진기술의 발달과 암 치료의 전문화로 인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이상으로, 10년 전에 비해 16%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암 수술 후 신체적 손상이 호전된 뒤에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암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암생존자의 직장복귀율은 30%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해마다 20만명 이상의 암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암생존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암환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립암센터의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된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우선 암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국립암센터의 전문가와 함께 발굴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한 자리에 모았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낙상으로 인한 위험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여 낙상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해피에이징이 참여했고,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사후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위드메이트, 그리고 암환자에게 필요한 위생, 소독, 정리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그린피플, 올리브앤제펫토, 대창)이 함께 힘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암진단과 치료라는 큰 인생의 고비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도록, 암생존자 및 경력단절여성이 주축이 된 정서돌봄서비스까지 구성하여, 암환자에게 필요한 4가지의 서비스를 준비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지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다행히 국내 최고의 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립암센터의 협력을 통해, 암환자의 특징과 암 치료과정의 유의사항, 암환자가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함께 학습하면서, 각자의 서비스를 암환자만을 위한 서비스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새롭게 구성한 정서돌봄서비스가 실제 암환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전문가와 함께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선발된 메이트가 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다.

국립암센터 의료진이 지역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암환자 중 고위험 낙상군을 선별하고 공공 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해 대상자를 의뢰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암환자의 일차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병행하였다.

국립암센터와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본 사업과정에서 확인한 암환자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모델을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이 종료되는 매년 12월경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2019년에는 '암 환자 돌봄과 사회적경제'라는 주제로, 2020년에는 '사회적자원 연계를 통한 암환자 돌봄'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유사한 사업을 설계하고, 본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한계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2021년을 마지막으로 총 3년으로 계획된 시범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유료화도 시도해봤지만, 환자들의 심리적 장벽과 더불어, 국립암센터가 갖는 공공성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다만, 지난 3년간 암환자들과 직접 부딪혀온 사업의 과정에서, 본 사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중에 유통되는 낙상방지용품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때문에, 암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치료과정에서 약해지는 근력 및 약력 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구, 소아암 환자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조절 가능한 낙상방지용품 등은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으로, 앞으로 개발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많은 암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생활관리 지원서비스, 암환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은 앞으로 암환자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아직 적절한 서비스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암센터는 앞으로도 암환자를 위한 실험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암생존자를 위한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기존의 사회적경제 틀 안에서 시행되는 서비스가 플랫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공공기관으로서 암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주체를 교육하고,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수요를 반영한 제품을 고도화시키고, 연구를 통해 서비스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퍼트리는 확장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도 만들고 암생존자를 고용해 사회복귀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적경제 교육, 설립지원, 컨설팅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암환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의 기회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암환자는 뜻밖의 계기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맞춤형 서비스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암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사회적경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델이기에 국립암센터와 고양시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앞으로 만들어갈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가 사례화되어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사업 후기

[국립암센터 공공의료사업팀]



그동안 암환자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없었는데, 암환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더욱이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중심적인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지자체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업한 경험이 전무하여 서로를 이해하는데 다소 힘들었지만 교육, 워크숍 등을 경험하면서 기관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사업이 체계를 잡아가고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본 것은 또다른 수확이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마치고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기 힘들었던 암환자를 위해 제공한 보호자 동행 및 이동 지원 서비스, 가정 내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낙상 방지 제품 설치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내 청소 방역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단절되어 외로움,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암환자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정서돌봄서비스. 이 모든 서비스를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획하고 제공하면서 암환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서비스를 왜 제공하지 않았었는지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자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협력을 통해 기획하여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산청군 이소파트너사업 1인 가구 사회적관계 향상지원

'아기새가 성장해 동지를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소"는 지역사회에서 외로움 고립감 등으로 사회적 소외감의 우려가 있는 농촌 1인 가구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돈독히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업,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임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19년~2021년(3년)
지자체명	경남 산청군
대표기관	산청지역자활센터
구성기관	이소클린, 자활사업단(약초사업단, 환경사업단, 체험사업단) (주)농부애, 동글레마을영농조합법인
서비스 대상	청·중장년층 1인 가구 및 노인 돌봄 사각지대 1인 가구 노년층
서비스 내용	자립생활지원 및 자존감 향상 서비스, 돌봄활동가 서비스 방문형 케어서비스(청소·방역), 일자리 지원 서비스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던져준 1인 가구에 대한 고민

알콜리즘이 심한 중장년 남성 한명이 산청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에 배정되어 활동한지 얼마 안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겨울에 술 먹고 침대에서 자다가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난방을 하지 않은 방에 장시간 잠을 자다가 벌어진 일이다. 유품 정리차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콜리즘을 해결하기 위해 자조모임에 잘 나가고는 했으나 알콜리즘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활사업단에 와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알콜리즘이 심해서 인생에 아무 낙이 없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대화할 수 있는 동료도 있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가족들에게 생전에 말했다고 한다.

그러던 즈음 산청군 복지담당자와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공모사업 공고를 보게 되었고 산청군은 1인 가구가 많고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이 다수인 상황이었다. 전국적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1인 가구 남성 자활로 많이 유입되고 있었다. 혼자 살아야 하지만, 혼자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요리, 빨래, 청소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을에서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립생활지원과 집단활동 등을 통해 밖으로 나와 사회적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관계 향상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산청군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대표기관 역할을 맡고 사업에 대한 방향과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제안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기관들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었다. 사실 사업 1년차에는 산청군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적어 서비스 제공 가능한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농부애(예비사회적기업), 동글레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기업), 이소클린(자활기업), 자활사업단(약촌, 환경, 체험사업단) 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산청군 자원봉사센터가 각각 1인 가구의 우울 정도,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과 상담, 돌봄활동가의 발굴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이웃이나 사회단체 등 사회적 관계망 단절 우려가 있는 가구, 이웃과 정서적 교류가 낮으며 우울감, 소외감의 우려가 있는 청·중장년층(저소득층 포함), 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주 서비스 대상으로 정하고 모집에 들어갔다.

2019년은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막 시작될 때였고 지역내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기도 해서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돌봄활동가 8명을 먼저 선발해 그들이 주변, 마을에 있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막상 낮에 서비스 제공을 하려고 보니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장애나 심각한 알콜리즘 등 심각한 고립 및 관계 단절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참여기관들의 컨 텐츠로 1인 가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컨소시엄 참여기관들과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제공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는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회성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함께 모여 약초체험, 생활에 필요한 목공 활동, 지역에 있는 유적지 및 문화공간 탐방,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보기 등을 진행하였다. 평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없던 사람들이 같이 배우고 만들면서 대화도 나누고 웃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평소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요리체험 프로그램으로 반찬과 요리를 만들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나홀로 지내던 1인 가구들 세상과의 소통에 한걸음 내딛다

돌봄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연락해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시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닫혀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전화를 하면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날들도 있었다.

홀로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던 이들의 변화를 단시간에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로 나와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정보를 얻게 되고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게 되면서 자활사업에까지 참여하는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나홀로에서 관계로, 고립에서 사회로 발을 내딛는 작은 변화의 시작점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산청군은 1인 가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단절 및 정서적 고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아직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산청군의 1인 가구가 50% 이상이라는



영화관 나들이



지역문화탐방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소파트너사업이 지역 언론에 기사로 많이 실리면서 특히 행정,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1인 가구에 대한 산청군의 고민과 노력은 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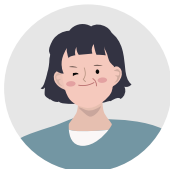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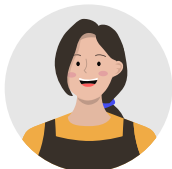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속화를 위해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에 진입하여 올해 1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서비스 대상자 모집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밖에서 볼 때는 1인 가구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당사자는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데까지의 간극이 있었다. 건강 관련한 의료서비스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아니기에 10% 본인부담금 지불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벽이 되기도 한 듯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은둔 상태에 있는 1인 가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상자 모집에 지역사회의 보다 촘촘한 관계망을 적극 활용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력, 돌봄활동을 통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및 돌봄활동가의 역량 강화,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실행을 계속해서 진행해 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 프로그램,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망을 만들고 확장,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내 다양한 자원연계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



사업 후기

[산청지역자활센터]



대표기관으로서 산청지역자활센터가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사회복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자활센터가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실제로 자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체험프로그램 등을 체계화하고 구성해서 실행해 보는 경험,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부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업이 가진 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지역내 얼마 되지 않는 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자활센터, 행정 등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의 경험은 지역사회의 자산이 되어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과 사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서울 마포구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서울 마포구
대표기관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구성기관	(사)함께하는 행복한돌봄(사회적기업),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주)백의민족(사회적기업), 함께주택협동조합, 올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청순이(자활기업),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주거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장애, 고령, 저장강박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대상자별 맞춤형 홈케어 서비스 제공

마포에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서울시 마포구는 2009년부터 시행된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지난 10년간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이동 및 지역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비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로하거나 저소득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주거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던 기업 중 '함께주택 협동조합'이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주거관련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서 서비스의 완성도나 지속성이 약하며, 특히 저장강박의심가구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인 서비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넘어 그들의 주거 환경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을 마포구청과 마포구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가 받아안았다. 그래서 마포구청과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망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약계층 홈케어사업TF추진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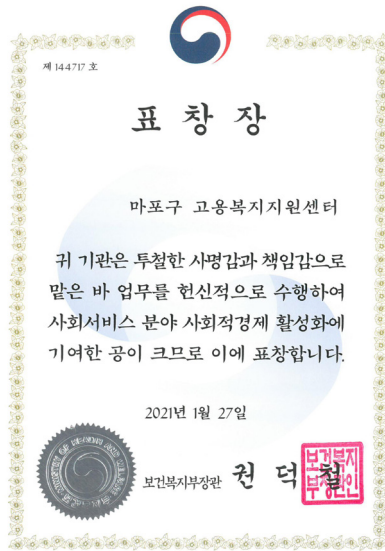


지역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서비스 공동생산

2019년부터 시작된 돌봄SOS사업을 함께한 마포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그동안의 거버넌스 협치가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어 이번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대표기관인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마포의 주거서비스 관련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심의 홈케어사업단을 구성하였다. 현재 통합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함께하는행복한돌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함께주택 협동조합, 저장강박의심가구 대상의 집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청소 및 소독·방역을 해주는 청순이, 백의민족, 울림드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홈케어사업단의 구성기관이 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간의,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간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서비스 대상자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조율 등은 대표기관인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덕분에 홈케어사업단은 민관거버넌스 및 여러 기업들이 함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어려운 과업을 균형감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문제 인식 및 공론화가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며 주민들을 만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호혜와 연대의 마음이 사업의 필요성, 목적성을 분명하게 해주며 사업의 방향성도 제시해주었다.



홈케어 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공동사업단에서는 홈케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창구를 통해 접수를 하면 주택 진단부터 주택수리, 청소, 소독·방역,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이불세탁, 정리정돈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

한마디로 사는 곳의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는 이러한 업종을 가진 지역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복지기관 등이 모여서 지역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공동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며, 대표기관, 통합창구기관이 함께 서비스 공유 및 공급 조율을 한다.

사회복지기관이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 받으면 통합창구에서 접수하고 세부적인 진단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 최근에는 현장방문시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직접방문, 현장 진단을 통해 정확한 서비스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택 진단을 마치면 통합창구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그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개별 사업으로 바쁜 기업들간 서비스 제공 날짜를 조율하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서로간의 배려와 호혜로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홈케어 사업은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비스의 유지 관리, 자기돌봄교육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장점이다. 저장강박의심가구의 경우처럼 폐기물처리, 청소, 소독, 방역 등 완료하고 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전문가와 연계하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가구별 정리정돈 및 청소는 자기돌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사후 모니터링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이러한 자기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모니터링 서비스가 많이 줄긴 하였지만 꾸준히 전화를 통해서 관리했던 부분에 만족도가 높았다.



정리정돈 전



정리정돈 후



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 처리 후

어렵지만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을 함께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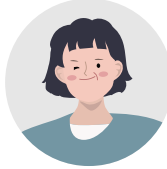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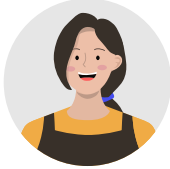
앞으로 공동사업단을 넘어서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홈케어 통합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모인 기업들이 각자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내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창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만족도 높은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임을 알기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함께 가기로 힘을 모았다.

이제 더 깊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는 협력적인 마포구청과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구보다 지역에 애정어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하여 마포에서는 적어도 좋은 삶의 기본이 되는 주거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기대하며, 마포에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면 홈케어사업단의 조합이 떠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 후기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서울지부에서 하는 노인생애체험을 우연히 하게 되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노인의 신체적 노화현상을 가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는데 하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뻣뻣하고 굳은 몸으로 걷는 것도,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다. 그때 생각했다,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바꾸어 드려야겠다. 나조차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이 든 내가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길로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주택수리업을 배우고 공부하며 관련분야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였다. 협동조합으로 주택수리업을 하면서 당연히 지역내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이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고령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고 그 분들의 집을 고쳐주며, 그 시간에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하였다. 나의 일상과 그분들의 일상을 이야기 하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또 찾아 봐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가끔은 그분들이 손수 만든 음식이라며 직접 건네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너무 고생한다며 말 한마디 해주실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든다.

또 이 사업으로 마포구청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거취약계층의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협치의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경증치매어르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대전 대덕구
대표기관	대덕구지역자활센터
구성기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서비스 대상	경증치매노인
서비스 내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건강먹거리지원 서비스

경증치매어르신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대덕구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은 아니었지만, 2018년 주민을 대상으로한 보건사업 욕구조사에서 가장 우선 해야할 보건사업 대상이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노인인구수가 대덕구의 15.8%에 육박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였기에 대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증치매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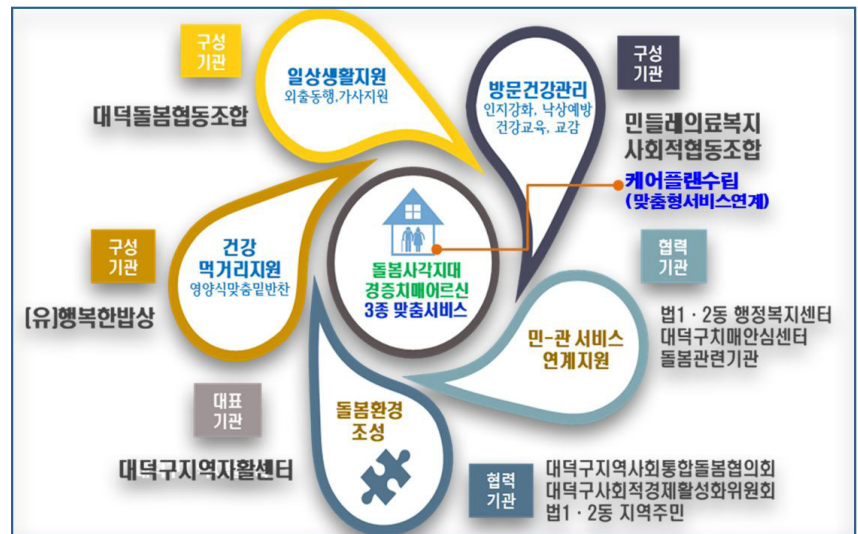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청과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대덕구지역자활센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행복한 밥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부터 2년째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 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웰라이프 돌봄서비스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덕구지역자활센터는 대표기관으로 전체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덕돌봄협동조합, (유)행복한밥상 등 사회적기업 3곳이 서비스를 실행하는 구성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덕돌봄협동조합이나 (유)행복한밥상은 지역의 자활기업에서 성장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이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의료조직으로서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대덕구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면서 건강, 일상생활, 먹거리를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웰라이프 돌봄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케어플랜을 수립한 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먼저, 케어플랜 수립을 위해 대덕구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병원,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를 소개받은 후 담당 케어플랜 매니저가 개별 상담을 통해 그들의 욕구와 상황을 기반으로 개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어플랜을 바탕으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주 1~2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덕돌봄협동조합은 주 1~2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유)행복한밥상에서는 주 1~2회 건강먹거리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태블릿을 이용하여 인지치료용 프로그램과 낙상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르신 눈높이에 맞게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대덕돌봄협동조합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회당 2시간 정도인데,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 더 많은 서비스 시간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행복한밥상의 건강먹거리지원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반찬을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로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신청자가 많은 인기서비스이다. 한번에 2~3일치의 반찬을 배달했기 때문에 주 2회로도 기본적인 식사를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대

상자들 대부분이 건강 상 유의해야 하는 식단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라 자녀들을 통해 맞춤형 식단에 대한 개별적인 요청이 많아 저염식, 당뇨식과 같은 새로운 상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돌봄사업의 부수적인 효과들!

웰라이프 돌봄서비스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적절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또 다른 형식의 주민참여와 지속가능한 동네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예방적인 성격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돌봄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었고,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어르신들이 입소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시기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경증치매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가족들(부양자)에게 시간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돌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복지관, 경로당 등 이용이 제한되면서 우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우리 서비스가 경증치매 완화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고독감의 해소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나 위생 증진을 위한 방문 목욕, 방문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해 드리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었으며,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협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힘들긴 하지만 보람차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대덕구형 지속가능한 동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스스로 고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유지되기도 해야하고 이를 통해 사업규모가 적절하게 커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촘촘히 서비스 수요자들을 챙기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타인들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같은 동네의 주민들에게 돌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법1·2동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12개 동 전역으로 확대해 소위 대덕구형 동네돌봄이 정착되고 주민들이 그 효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대덕구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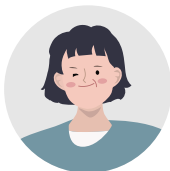
사업 후기

[대전 대덕구지역자활센터]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일반적인 치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경증치매라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인 경증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되었다. 왜냐하면, 대덕구와 사회적기업이 모여 민관 네트워킹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주인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대덕구만의 선순환 동네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뜻깊었다. 아울러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만족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많이 느꼈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증치매 웰라이프 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기관 간 협력하고, 기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용자분들께서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희망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취약 계층 밀집지역이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자녀들의 보살핌은 커녕 외면 받는 모습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예전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다. 언젠가는 나도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좋아지고 치매가 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서비스 제공자인 나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경증치매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가끔 당황스러운 일도 생겨 지치고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서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거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들을 때에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대덕구라는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되어서 너무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덕구형 동네돌봄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편안한 쉼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경기 파주시

장기입원 퇴원환자 돌봄체계 구축「더 나은 돌봄」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경기 파주시
대표기관	파주지역자활센터
구성기관 (2021년 기준)	파주시통합돌봄센터(사회적협동조합), (주)수호천사, (주)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주)행복더하기, (주)클린케어
서비스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퇴원이 가능한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급성기환자 중, 재가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서비스 내용	돌봄서비스(방문간호 및 가사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초고령사회의
대비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해,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6.4%에 이르며,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규모는 전국 평균인 14%에 못미치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이다. 하지만, 파주시의 16개 읍면동 중 5개 읍면은 노인인구가 20%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기에,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노인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 저소득 노인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파주형 통합돌봄사업인 '파주-온돌사업'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해당 정책사업의 기반 하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견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파주시지역자활센터가 주목한 문제는 '사회적입원'이었다. 사회적입원은 돌봄을 사람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 의료적 필요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말한다.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환자 중 "집에 가서 이웃들도 만나면서 지내고 싶다"는 환자가 많으며,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향후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디에 머물고 싶으냐'는 질문에 46.5%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고 답한 것과 같이, 많은 노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의 48%가 의료적 치료보다는 돌봄·주거해결·통원치료·식사불편 등의 이유로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해 있는 어르신 대부분은 돌봄·주거 등의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돌봄 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본의 아니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아, 파주시는 사회적경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과정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 파주시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부담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장기입원환자와 연간 입원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과정에서 고관절수술 등으로 퇴원한 급성기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등급으로 지정되기 위한 수 개월의 기간동안 등급 유예자로 판정되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입원 등으로 장기입원할 수밖에 없던 퇴원 환자 및 급성기 퇴원환자 중 등급유예자로 판정되어 원활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퇴원환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은 돌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돌봄의 주춧돌을 쌓다

파주시는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 지리적 특성과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급자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한 곳의 거점에서 전체 파주시역을 관할하기에는 이동 및 대응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다. 이에, 파주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노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각 권역을 담당하도록 초기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파주시지역자활센터가 기존에 운영중이던

영양급식 서비스를 개편하여, 당뇨식을 추가로 조리 및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사업을 준비했다. 다행히 파주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인 파주 온돌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의료기관, 대학교, 공공기관 등 17개 지역기관과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 상담, 주거지원, 추가 필요서비스 연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복지지원과와 병원 등에서 퇴원이 가능한 환자를 추천하고, 복지정책과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전 욕구조사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도출한 뒤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파주지역자활센터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였다.

그 결과, 사업 첫 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코로나19, 임진강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누적 서비스 이용자 102명에게 가사간병 뿐 아니라 청소, 세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자체 설정한 의료급여 장기입원일수 지표 측정결과, 전년대비 7.3%가 감소하는 효과를 달성하여, 퇴원이 가능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공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생활의 어려움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다

파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파주 온돌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불거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슈 등이 맞물려, 다양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은 사업의 협력 제안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었다.

이에 지역 병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기획했고, 추가 예산도 마련하여 식사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 많은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차년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기관 및 푸드뱅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노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자원 봉사 지원, 경서지원, 식재료 등 후원물품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돌봄의 기둥 세우기

첫 해의 사업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의 발생으로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협력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돌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토대 위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실험해야 하는 단계이다.

권역별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제 권역별 통합돌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파주시 복지정책과 및 협력기관들과 병행하여 수행하던 사전육구조사 및 퇴원계획 수립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비록, 지역의 다양한 복지정책 및 자원, 대상자별 주요 특징 등을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2년까지 해당하는 역량을 갖추고, 각 권역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파주시 복지정책과는 ‘더 나은 돌봄’ 사업을 통해 노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향후 본 사업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읍면동사무소,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확보하여 권역별 촘촘한 거점시설을 통해 돌봄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인력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을 형성하여, 노인들이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추가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활사업단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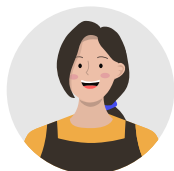
취약계층,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사회적경제기업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파주시는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뿐 아니라, 파주시의 많은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역단체들이 힘을 모아, 다가올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2년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돌봄의 주춧돌과 기둥 위에 끊임 없이 흘러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뒤에는 노후를 가장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힐 파주시를 상상해본다.

사업 후기

[파주시 복지정책과]



먼저, '통합돌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파주시에서 시행할 수 있어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각 기관이 통합돌봄이라는 목표를 향해 서로 맞추고 조정하며 협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공공의 가치 실현 기여를 생각하면 각 기관의 역할들이 의미미하다고 생각한다.

통합돌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 '그들만의 상황이 아닌 곧 닥칠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임이 틀림없다.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4가지 고통의 문제가 경제적 빈곤, 고독, 일이 없음과 질병의 문제라고 한다. 파주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파주시 통합돌봄-더 나은 돌봄'사업의 활성화로 선제적 예방과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전남 장흥군

'해피케어-해피콜서비스'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전남 장흥군
대표기관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구성기관	(주)정남진뷔페,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대상	장흥군 10개 읍·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서비스 내용	맞춤형식단지원서비스, 해피콜케어서비스, 해피스킨케어테라피서비스

보살핌이 필요한 농촌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농촌지역인 장흥군은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존 노인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노인들의 새로운 욕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흥군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회진면 끝과 장평면 끝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길쭉한 자와 같은 모양으로 어떤 곳은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고 택시를 부를 경우 콜비만 만원이 넘는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 이렇게 군 중심지로 이동이 어려워 면단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독거노인들의 경우 생필품 구입, 병원진료 등이 어려워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식단관리 및 정기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가진 노인들은 혼자서 식사준비, 주거환경관리, 병원통원 등 일상생활 돌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다.(2020년 장흥군 10개 읍면 280명의 노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장흥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축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던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 (주)정남진뷔페와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내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지역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맡고 있는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해피케어-해피콜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장흥군 독거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은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이동에 관한 영역이었다. 이러한 수요분석을 통해 사업의 목표를 맞춤형 식단개발을 통해 만성질환 독거노인의 식생활 개선과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의 이동편의서비스 제공, 고령화로 인한 우울감 및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테라피 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서비스를 시작하기전 지역의 보건소를 연계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별 노인들의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였다. (주)정남진뷔페는 지역의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건강식단(저염식, 일반식)을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였으며, 전남장흥자활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차량으로 독거노인들의 병원진료나 생필품 구입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특산물인 생약초를 활용한 스킨케어테라피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신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독거노인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 - 건강식단과 이동지원, 심신케어

그 동안 지역의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으나 코로나19상황으로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그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는데 맞춤형식단서비스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하게 조리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당분과 나트륨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저염식 식단을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집에 직접 배달하며 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기도 하였다.



이동지원서비스는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 이동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병원방문, 생필품구입, 은행업무 등을 위해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처음에 낯설어하며 이용하기를 주저하던 노인들이 한번 이용하고 난 후부터는 만족해하시며 이런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였다.

스킨케어테라피는 장흥지역의 특산물인 생약초를 베이스로 하여 개발한 오일로 독거노인들의 우울감 해소와 심신안정을 위해 얼굴, 어깨, 손, 발, 두피 등을 케어하는 서비스이다. 장흥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양성된 테라피스트(피부관리사자격보유)들이 직접 독거노인들의 집에 방문하여 케어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부 확인 및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도 병행하였다.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색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만성질환 독거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사회 돌봄 안정망을 형성하고자 서비스 개발의 대표기관으로 활동하였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이라는 어려운 과제 속에서 지역의 특성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협력구축을 통해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서비스 계획, 서비스 수행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안 마련,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표준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사회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서 참여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조율해가며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업에 구성기관으로 참여 중인 사회적경제기업들 또한 기존 자신들의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흥 지역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함께 협력해온 사업단은 앞으로 서비스들을 좀 더 보완하여 장흥의 독거노인을 위한 '해피케어-해피콜 서비스'를 전남 장흥군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독거노인들과 그 자녀들의 만족도가 높아 참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좀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을 통해 장흥 지역의 독거노인분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업 후기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



독거노인 '해피케어-해피콜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하여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함께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 선별과 서비스 계획, 서비스제공 과정 등에 있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사회적경제기업들로부터 들려오는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들으며 힘을 낼 수 있었다.

혼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가져다드리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고마움을 표현 해주셨다. 코로나19시대에 사람과 정이 그리운 독거노인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건강 반찬과 안부인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동서비스 또한 이동이 힘든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였고 스킨케어테라피는 테라피를 진행하는 시간동안 노인분들과 말벗이 되어 드리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스킨케어테라피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서비스 과정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서비스 수행 인력들 또한 자신의 부모님이 생각나고 부모님께 해드리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들이 좀 더 확대되고 다양화되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생거진천 케어-팜'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충북 진천군
대표기관	진천군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
구성기관	(주)힐링플레이, 진천공예협동조합,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진천군노인취업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경증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서비스 내용	직업재활교육, 고용, 여가 및 정서적지지, 돌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진천군은 2019년부터 마을 단위로 유희지 가꾸기 사업을 운영(마을 유희지에 꽃묘종을 주민들과 함께 심고 가꾸는 사업)하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하는 시간들에 의미있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진천군은 도농복합도시로 지역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돌봄에 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지적장애인 비율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사회 지적장애인들의 돌봄서비스(직업재활, 사회성향상, 정서적 지원 등)가 필요하였다. 더하여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 케어팜 조성



마을 화단조성

예를 들어, 장기요양 인지기원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에 대해 거부감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있거나 경증의 정신질환이 있어 집안에만 있던 대상자의 경우 지역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워 점점 고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농업활동이 갖는 치유적 기능(농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할 일)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케어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에 사회적농업(케어팜)서비스와 관련된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 연계협력(컨소시엄)형 사회적농업(케어팜)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농업(케어팜)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경증치매노인, 장애인 등)이므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건, 복지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케어팜 농장



케어팜 사회적경제기업 컨소시엄

각각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컨소시엄

진천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보건, 복지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천군만의 특성을 가진 케어팜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진천군은 작은 군단위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수가 많지 않아 케어팜 서비스에 필요한 구성기관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케어팜의 특성상 농장이 중요하므로 공간 마련을 위해 진천군의 도움을 받아 진천군의 유휴공간(구, 농업기술센터)을 활용하였다.

진천군 주민복지과,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돌봄, 케어팜 운영), 진천주거복지센터 두꺼비하우징(케어팜 시설 및 관리), (주)힐링플레이, 진천공예협동조합(케어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지원)과 진천군노인취업지원센터(노인일자리 연계)가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계획하였다.

케어팜(carefarm)
= 돌봄(care)
+ 농업(farm)

이렇게 모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농업활동을 매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어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보건,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케어팜을 활용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증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게 케어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활동으로 엽채류, 과채류, 옥수수, 고구마, 호박 등 계절에 맞는 농작물을 식재·관리·수확·판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농업(케어팜)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농작물, 화훼 등을 이용하여 원예활동, 간단한 요리활동 등도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는 농업활동 후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거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옥수수를 수확하여 외부 판매장(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옥수수를 판매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화훼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증치매 노인들은 농장에서 산책을 하거나 일반노인들과 함께 원예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요양서비스 기관과는 다른 환경과 서비스를 받아보는 경험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장애인들도 사회적농업(케어팜)을 통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을 통해 작지만 소득을 가져가는 직업재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농업(케어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으로만 그치지 않고 농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생소하지만 새로운 시도 -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형태 ‘케어팜’

돌봄으로서의 사회적농업(케어팜)은 시작단계라 아직 생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회적농업(케어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사회에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시도하는 일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에서는 이미 케어팜이라는 돌봄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농업(케어팜)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데 진천군에서는 ‘생거진천 케어팜’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돌봄 모델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는 지역에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개인에게 사회서비스 형태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케어팜과 연계한 주간보호센터 또는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작업장과 같은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농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있던 돌봄서비스의 형태가 아니라 케어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힘든 부분도 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사회안에서 서비스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있도록 사회적농업(케어팜)과 같은 새로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생거진천 케어팜은 아직은 생소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농업(케어팜)과 연계한 돌봄서비스가 제도화 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자신에게 맞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돌봄모델을 만들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사업 후기

[충청사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케어팜이라는 서비스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고 케어팜 공간마련, 시설설비, 법적/제도적인 문제, 지역의 보건/복지기관 연계 등의 과제가 산재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작은 군단위 지역에서 케어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케어팜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애써 왔다.

케어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인상 깊게 남은 사람 한명을 소개하고 싶다. 발달장애학교 졸업 후 어둡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집에서만 지내던 발달장애청년이 우리 케어팜의 장애인 일자리로 일하게 되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한 발달장애학교 후배들의 케어팜 서비스에 참여하자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함께 해 가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다.

케어팜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사업을 잘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케어팜은 아직 씨를 뿌리는 단계이지만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케어팜 운영에 힘쓰려고 한다.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서울 노원구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지역통합돌봄'

사업유형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사업기간	2021년(1년차)
지자체명	서울 노원구
대표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성기관	(기존) 사랑의손맛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확대) 노원나눔의집, 노원주거복지센터, 노원지역자활센터, 맑은숲돌봄협동조합, 서울가정의학과의원, 파란등그라미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대상	50세 이상 전환기 돌봄 대상자
서비스 내용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사업체계 형성,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제공사업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시작

노원구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돌봄 취약계층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인구수는 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5세 이상 어르신은 24%, 65세 이상 1인 가구는 33%, 기초수급자는 5%, 1인 가구 수는 12% 증가하였다. 장애인 인구수가 1.6%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수의 감소와 비교하면 사실상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돌봄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특성으로 인해 복지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사회복지 민간 전달 체계들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지역의제로서 돌봄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 2018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협치커뮤니티케어사업, 건강안심주택, 서울시 돌봄SOS '우리동네나눔반장' 등이 운영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통합돌봄 영역에서의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합적인
운영체계의 필요

노원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개별 사업들이 통합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사회적경제 돌봄 체계를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것. 둘째는 이를 위한 돌봄사각지대 수요자에 대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 중 첫 번째인 통합적 돌봄 체계 형성은 2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하나, 통합돌봄을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합사업체를 형성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묶어내는 것이었다. 통합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존의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으로는 실행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과 이후의 전략수정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성과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더해서 근본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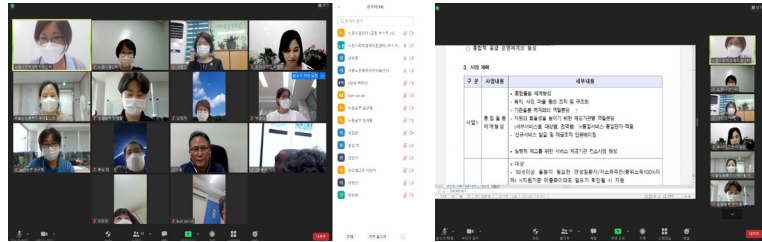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작용하였다.

통합사업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모여 사업연합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기존의 돌봄네트워크 자원과 건강안심주택 추진단, 노원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에 통합사업체 형성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총 9개 조직 13명으로 자활센터, 의료사협, 주거복지센터, 1차 의료기관,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월 1~2회씩 모여 통합돌봄에서 사회적경제 역할은 무엇인지, 복지전달체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토론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학습도 이어나갔다. 또한, 의료, 주거, 마을 등 영역별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알아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관점의 갈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아진 내용은 돌봄이 시장화되는 현실에서, 민간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었다.



체계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비영리 기관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노원구는 서울시 돌봄SOS 사업에 참여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사업단을 구성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돌봄SOS의 경우 행정시스템을 통해 각개 조직으로 의뢰되는 방식이라 참여조직이 개별화되는 문제가 있었고, 행정계획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직적 시너지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가가 책정되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고, 일시재가의 경우 개인영리 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돌봄SOS에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했던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노원종합재가센터 등에 컨소시엄 참여의사를 확인하였고,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였다. 서비스 제공조직 컨소시엄은 사회적경제조직(자활센터 포함)과 공공기관(노원종합재가센터)의 16개 조직(사업단)으로 구성하였다. 각자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주거편의서비스의 경우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간 단가가 달리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통합적

공급력 제고를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단가 원칙으로 단가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가사지원과 동행지원서비스의 경우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서로 경쟁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노원구를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담당기관을 정하였고, 해당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공동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돌봄사각지대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노원구 특성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시범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돌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대상은 기존 돌봄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서비스가 불충분한 대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서울시 돌봄SOS, (자치구)가사간병 등 기존 돌봄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자였다. 케어사이클에 따르면 급성질환기를 거쳐 회복기에 있는 분들로,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특히, 노원구)이고, 등급의 판정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간단한 안부확인만을 받거나 중점관리군이라 하더라도 신체활동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돌봄SOS의 경우 긴급지원의 성격으로 임시방편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대상자 발굴은 3개의 경로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노원구청 찾돌봄지원팀을 통한 19개 동주민센터, 관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 관내 3개 종합병원(원자력, 을지, 백병원) 사회사업실로, 이들 기관들은 사전공유를 통해 사업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 연계하는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는 10월 31일 현재, 신청 인원 54명으로 서비스제공은 28명 32건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의 필요를 1차 파악하는 것은 협력기관이, 신청내용에 따라 매칭하고 조정하는 통합창구 역할은 컨소시엄 대표기관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상황파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협력기관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중 도움이 절실한데도 기존 돌봄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는데, 인상에 남은 몇 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_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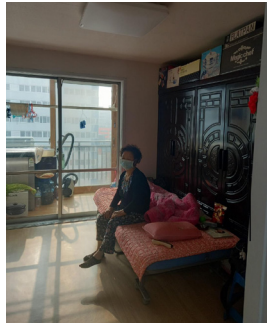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시다 여생을 동생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 7월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동생들이 간신히 마련 해 준 원룸에서 거주하시는데 동생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생활이 넉넉지 않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오신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에 다녀오시곤 했는데 어르신이 아직 한국 국적이 없어 어떤 돌봄 지원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이 이런 사정을 알게 되어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사람에 대

한 불신으로 누가 방문하는 것을 불쾌해하고 케어 받는 거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서비스하시는 선생님께서 와 주셔서 너무 좋다고 고마워하십니다. 이제는 미역국도 먹고 싶다. 조림도 먹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사례2 _김○○ 어르신



김○○ 어르신은 원래 한쪽 팔이 불편하셔서 나머지 한쪽 팔로 생활을 하셨는데, 넘어지시면서 남은 한쪽 팔을 다쳐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상태가 악화되어 두 팔을 모두 굽히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다 팔도 반 밖에 굽혀지지 않아 머리감기, 세면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자꾸 넘어지셔서 미끄럼방지 매트도 깔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요양사 선생님이 개인위생을 도와드리니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거울도 자주 보시면서 화장도 해달라고 하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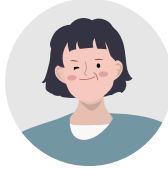
서비스제공조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조직이 제공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목록화하였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취합하였다. 그렇게 해서 보건 의료, 주거, 일상가사, 식사, 정서지원 등 5개 영역의 12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증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서비스의 수요도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가사지원과 병원동행으로 집중되었다.

노원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지역통합 돌봄

올해 1년차 사업을 키워드로 요약하면, ‘체계마련’, ‘서비스 표준화’, ‘통합돌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별화되어 진행되었던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통합돌봄의 모습과 내용은 지역의 조건에 따라, 주체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어떤 정답도 없지만 우리는 그동안 몇 가지 단위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였다. 2020년 돌봄수요공급 현황조사에서 노원의 사회적경제 돌봄 제공 조직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별 조직의 한계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정책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네트워크 욕구와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를 조직화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업 후기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의제를 지역과 함께 공유하고, 시범서비스를 통해 공동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이 가장 의미있게 느껴진다. 기본적인 복지전달체계인 구청과 복지관 등을 통해 수요자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공유되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토론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협동을 구조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권역별, 영역별 역할분담과 단가 표준화를 통해, 공동사업에서의 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였다. 협동은 당위가 아니고, 각자의 필요를 드러내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몇 가지 제시되었다. 일단, 사회적경제의 공급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서비스 품질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클럽, 지역사회활성센터의 경과적 일자리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조직을 인큐베이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올해에는 내부의 역할분담에 집중하였다면 이후 사업추진시에는 지역에서의 역할분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자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 노원의 다양한 민간자원들이 서로 연계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의 폭넓은 자원망으로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 민간과 공동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들을 정리하여 노원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원지역의 돌봄생태계가 강화되고,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 서울시 영등포구** 돌봄형 지역관리기업, 영등포 생활공작소
- 서울시 중구**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 인천시 미추홀구** 우리마을 C.C.(child Care)
- 광주시 광산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공동체 '광산형 영구임대 늘행복 건강밥상'
- 광주시 북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 공동체 만들기 <다(多)가치(같이)돌봄>
- 세종시** '여민콥(與民Coop)' 활성화 프로젝트

돌봄형 지역관리기업, 영등포 생활공작소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서울 영등포구
대표기관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구성기관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 다다쿰
서비스 대상	유아, 초등학생, 독거노인
서비스 내용	(방과후, 학원사이, 저녁) 돌봄서비스, 요리돌봄 사업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영등포구는 구도심으로 1인 가구(37.5%), 65세 이상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구가 다수로 어르신도 많지만 유입되는 외국인 가구의 자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다. 특히 상가가 밀집한 곳이기도 하지만 영중초등학교가 있어 인근 다른 동네에 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수가 많다.

이는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 문제와 맞벌이 뿐만 아니라 단독 양육을 하고 있는 경력보유여성의 아동 돌봄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특히 지역 안에 아이들이 뛰어 놀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들의 신체·정서 문제 등 아직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의 돌봄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더 어려워진 돌봄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돌봄 문제는 비단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 복지팀 내에 ‘돌봄SOS 센터’를 운영해 돌봄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원스톱 복지·보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전력량 및 온도 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에는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여성 1인가구에는 CCTV, 디지털 비디오 창 벨, 창문스토퍼 등으로 구성된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소통문화공간인 ‘HEY YDPI’와 ‘맘든튼센터’, ‘아이랜드’를 확대 운영하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구에서 직접 조사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공적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에서 이러한 공적 돌봄을 통해 큰 그물망으로 공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발생하는 노인 돌봄 문제와 이주로 인해 늘어나는 아동 돌봄 문제 등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돌봄 수요와 행정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골목의 돌봄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마을 오지라퍼들

이에 마을에서 오지라퍼라고 불리우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던 학부모들이 마을을 모으기 시작했다.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큰언니네부엌)과 다다쿰은 두 공동체 모두 학부모 활동으로 인연이 된 이웃들로 이루어졌다.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에서 아이들의 육아와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모여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엄마들도 함께 성장하며 특히 돌봄 교육, 문화예술 사업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일들을 진행해왔다. 김혜경 대표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학부모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지금은 서른에 가까운 나이가 됐고 그 세월만큼 큰언니네부엌 구성원들은 십 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기들이 됐다”고 말한다. 지금은 이미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손주에게 할머니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마을에선 큰언니라며 웃음짓는다. 마치 친정처럼 푸근하게 아이들에겐 엄마 선생님, 아이들의 엄마들에겐 양육 선배인 큰언니로서 어느덧 영등포구에선 큰언니네부엌이 돌봄의 고유명사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다다쿰은 맛벌이로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같은 돌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하고 있다.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이 학부모를 졸업한 마을 언니들로 구성됐다면 다다쿰은 현재 학부모 당사자로서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양육,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접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영등포구 '홍(弘)반장'들의 촘촘한 골목 돌봄에는 이렇게 30대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당사자로서 사업 진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다쿰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해보자! 해보자! 우리 해보자~

누구나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꿈꾸지만 그 꿈의 실현을 위해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가정주부의 경우 더 그렇다. 양육을 비롯한 가사가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한국 사회현실은 어김없이 돌봄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큰언니네 부엌과 다다쿰은 그 첫 발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내딛게 된다.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을 통해 등장했다.

마을예술창작소사업은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2년 만에 자립을 결심했고 지원 받기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아닌 큰언니네부엌을 어떻게 소개해야할지도 막막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때문에 2017년부터 영등포 혁신지구 사업으로 마을강사 활동을 시작했고,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큰언니네부엌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돌봄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지만 우리가 그 동안 늘상 해오던 활동이니까 해보자!라고 서로를 독려하며 사업을 진행했다.

다다쿰은 직접 담은 김치와 반찬들 매일 압력솥에 갖지는 밥으로 만든 도시락을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진 학습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 및 특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서 큰언니네부엌과 다다쿰의 서비스가 주민들이 그 필요를 스스로 느끼고, 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찾아내 이웃들에게 제공한다는 강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큰언니네부엌의 놀이한자 수업



다다쿰의 책과 미술로 노는 아이들

지역사회연계 생태돌봄 네트워크로 영등포구만의 특별한 돌봄문화 만들기

이처럼 활동을 이어오던 2020년, 영등포구의 참여공동체들은 개별적인 활동의 한계를 느끼며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기 시작한다.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체 모임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서로 돌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공동체별로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여 그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지역 내 생태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큰언니네부엌, 다다쿱 외에도 대표기관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주도 통합 돌봄의 실천 사례, 각 공동체들의 영등포구 연결망, 돌봄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선유사회적협동조합 선유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이 더해져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 이렇게 현재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선유 사회적협동조합 선유지역아동센터,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 다다쿱이 함께 작은 골목에서의 돌봄을 시작으로 이제 지역사회의 생태돌봄 네트워크로서의 광장으로 나아가 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골목을 살피는 촘촘한 눈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가능 도시발전목표와 ESG 경영을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큰언니네부엌은 전담인력 육성을 통해 서비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지역공동체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1·3 세대간의 같이 돌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병원의 사회서비스 돌봄 모델을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아이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에 한 몫을 하며 차세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지구 환경을 살리는 생태돌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다다쿱은 돌봄과 먹거리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단위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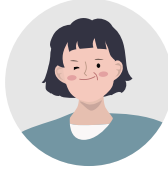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기관인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은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공동체에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사업 진행에 참여한 이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인지하게 됐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양육으로 인한 경력보유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딛고 사회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는 계기도 되어 주었다.

오늘도 영등포구 '홍(弘)반장'의 촘촘한 골목 돌봄은 골목을 힘차게 누비고 있다.

사업 후기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구 '홍(弘)반장' 촘촘한 골목 돌봄을 위해 달리고 있는 대표기관과 두 공동체는 참 많이 닳기도 했지만 또 그 닳음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먼 나라 속담이 이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출산률이 낮아졌지만 또 그에 따른 양육의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양육에 따른 고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고충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하나 둘 모여 함께 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부모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뛰어놀 친구, 내 아이들이 자라나는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이제 내 아이를 다 키운 뒤 마을의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홍(弘)반장들이 모여 촘촘한 돌봄 그물망을 펼치고 있다.

마을 안에서는 누구든 돌봄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제공자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다반사고 돌봄의 강도나 필요도가 무지개처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그 때문에 공적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발생하는 이유일 것이다.

대표기관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양육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하여 내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 양육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를 느끼는 당사자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큰언니네부엌은 장난감병원이라는 매개를 통해 아동과 어른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돌봄서비스가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병원에서 만나 동네 골목을 오가며 서로서로의 안부를 챙겨 묻는 사례를 접목하는 활동까지 확장하게 됐으며 다다쿡은 돌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나 스스로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큰 변화를 느끼며 단순한 도시락 제조를 넘어 몸과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영등포구의 '홍(弘)반장' 촘촘한 골목 돌봄이 당사자들의 자기주도성으로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서울 중구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서울 중구
대표기관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성기관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 약수동 주민공동체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내용	주중/주말 돌봄서비스, 가족 및 부모대상서비스, 교육돌봄콘텐츠

우리 지역의 돌봄
이대로 괜찮은가?

중구는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심 상업지구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거주민수가 가장 적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젊은 세대의 감소는 만성적인 교육인프라 투자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타구로 전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 거주인구 감소에 따른 양육, 교육환경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체계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및 돌봄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왔다.

2~3년 전부터 교육 및 돌봄환경에 대한 고민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의 이러한 교육 및 돌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주민 주도의 대안적 돌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모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교회와 협업을 통해 공간을 후원받아 교육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의 자조모임에서도 발달장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주민들의 움직임은 2020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부분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지역내 돌봄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을 우리가 직접 하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조합은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이다.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은 육아맘공동체(유아돌봄)와 맘티쳐공동체(초등돌봄)가 지역의 아이돌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주도형 사업들(자선플리마켓, 마을공동체사업, 동네배움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키워 만든 조합이다.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교회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과 주말 긴급돌봄, 청소년 내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는 지역의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조모임에서 출발하여 2019년 조합을 설립하고 중구지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말돌봄, 체험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육아맘공동체와 맘티쳐공동체가 모여 만든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의 교회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실행해가고 있다.

처음 주민자조모임으로 자선플리마켓과 육아맘프로그램을 할 때는 교육장소와 모임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지역의 교회에서 공간을 선뜻 내어 주고 도움을 주었다.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엄마들의 모임이 더욱 찾아지고 긴밀해졌다. 엄마들은 지역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동네배움터사업, 축제 진행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았다.

맘티쳐공동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아맘공동체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기획프로그램, 단기프로그램 등 비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점차 참여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정기적인 돌봄으로 확대하였다. 부모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교사로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들로 점차 역량을 쌓은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주말 돌봄도 시도하고 청소년들이 동생들을 가르치는 내리교육도 시작하려고 한다.

공적돌봄에서는 보기 어려운 아이들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는 돌봄, 교육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실험들과 시도들을 해 볼 수 있는 주민참여형 돌봄은 점차 지역의 대안적 돌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학습위주의 돌봄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주고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는 2019년 사회적경제 주민 아카데미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일상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인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일상 돌봄 뿐만 아니라 자립에 필요한 직업재활 프로그램(바리스타, 디자인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부모들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운동 및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바리스타 교육, 그림 및 디자인 교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 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가진 심리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로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의 실내 카페공간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굿즈 제작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카페운영에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발달장애부모들과 발달장애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계속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모들이 먼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청년들도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교육 이후에는 청년들이 직접 카페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로돌봄, 함께하는 대안적 돌봄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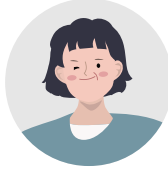
돌봄이라는 주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함께 마음을 맞추고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해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조직운영과 사업관련 서류처리 등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힘들지만 즐겁게 노력하고 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주민조합 스스로 지속가능함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협동조합으로서의 운영철학과 체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가지고 함께 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대안적 아이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의 확대 및 주말긴급돌봄, 청소년 내리돌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더자람사회적협동조합만의 교육 및 운영 철학을 잃지 않고 공적돌봄체계로의 전환도 고려 중이다. 이에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비전공유, 조직운영 교육 등에 더욱 힘쓰고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하려고 한다.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 또한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당사자 조합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만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교류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 조합의 역량을 키우고 중구 지역내에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늘리며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은 주민조합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업 후기

[아낌없이주는나무]



2019년 서울 중구사회적경제생태사업단의 '내일가치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발달장애아이들의 지역사회 적응, 자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모여 협동조합 아낌없이주는나무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울시 예비마을기업으로도 지정되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말돌봄, 체험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점차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부모들도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일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참여하게 된 동기도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돌봄, 직업재활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자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중구교육지원센터 '이로움'의 카페위탁운영, 지역 내 다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등을 통해 확장하려고 한다.

부모와 둘이서 힘들게 지내던 발달장애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

우리마을 C.C.(Child Care)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인천 미추홀구
대표기관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성기관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대상	유아, 초등학생
서비스 내용	돌봄서비스(야간돌봄, 주말돌봄(공휴일), 긴급돌봄, 주민커뮤니티 지원사업교육, 현장체험학습

아이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돌보는 마을 돌봄의 시작

미추홀구는 인천시 면적의 2.3%밖에 되지 않으나 10개 군·구중 3번째로 많은 21개 행정동을 관할, 현재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등 대규모 도시개발, 주택 재정비로 2016년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 12월 말 기준 미추홀구의 0세에서 13세 미만 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구는 약 41,375명으로 미추홀구의 전체 인구 대비 약 1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도심 재개발로 2,2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인구의 증가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이 미처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켜 시범사업 시작 후 사업 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대다수 학부모가 틈새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돌봄서비스 유형별로는 등·하원 돌봄과 야간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교 방과후가 끝나는 오후 4시부터 학부모의 실질적인 귀가 시간인 오후 8~9시까지의 돌봄 수요가 많았다. 또한 자영업으로 인해 주말에도 일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주말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기도 했다.

용현2동은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이며,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용마루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돌봄 수요가 있는 야간(18시 이후) 및 주말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있지만, 영유아 육아에 한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방과 후, 학원 종료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의 틈새돌봄을 수행하는 단체는 없었다. 아파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 돌봄 사업이 발달한 지역들과 달리, 사업지역인 용현2동은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지역으로 돌봄을 수행할 단체가 부족한 반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틈새돌봄(야간, 주말, 긴급)을 수행하는 공공·민간기관이 없는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주민공동체 ‘하랑’ 구성원들이 나섰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의

돌봄이 끝나는 시간 이후의 돌봄을 책임지는 야간돌봄, 주말에 일하는 맞벌이 부모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모를 위한 주말 및 공휴일 돌봄, 보호자에게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주 양육자가 조부모일 경우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때의 돌봄공백)를 대비한 긴급돌봄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동모집

프로그램 : 미술, 토탈공예, 3D프린터 공예, 국.영.수 학습지도 대상 : 4세~초4학년 (차량운행 가능)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 문의사항 | 032-255-5668

- 야간돌봄(오후 4시~오후 11시-입·퇴실 자유)
- 주말돌봄(오전 10시~오후 17시-입·퇴실 자유)
- 긴급돌봄(전화상담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듣고,
실행하는 돌봄이
되자 !



아이들과 함께 구성한 프로그램 중, 토탈공예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도 좋으며 강사님이 작품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단순 만들기 시간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초논술 시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진행되었으며, 미술교실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운 마술을 각자의 부모님께 시연해 봄으로써 자신감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3D프린터 공예시간은 여건상 출력까지 해보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장난감을 직접 만들고, 다양한 물건의 제작과정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시행한 파자마 파티 또한 아이들의 추억에 잊지 못할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자고, 쉬는 것이 더 편할 법도 한데 파자마 파티를 하자며 기다리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베개 싸움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놀다가 자는 게 좋다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미취학 아동의 부모님은 부모를 찾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서운함을 비치기도 했다.

야간돌봄이기에 가능한 부분은 또 있다. 퇴근이 늦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일일이 챙기기 힘들 때가 있다.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정작 생일 당일에는 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아이들의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덜어줄 수 있어 호평이 많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돌봄교실은 점점 단순 돌봄이 아닌 가족의 부족함을 채우는 제 2의 가정으로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함께 성장하는 어른들(선생님들)

주간돌봄이 아닌 야간돌봄과 주말돌봄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돌봄에 함께하는 주민(돌봄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말과 야간... 내 식구들을 뒤로 하고, 나와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어찌 간단하고, 소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사업이 진행되는 내내 하게 되는 고민이고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고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아르바이트 또는 특수일자리 형태로 확보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논의 중이다. 또한 운영에 관한 부분에도 의견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조합에는 보육교사를 정년퇴직하신 선생님, 지역에서 보육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민, 얼마 전 어린이집을 그만둔 선생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다보니 마을공동체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해아놀이터로 오신 선생님은 기존과는 다른 흐름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아놀이터는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 및 인성 교육을 부모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나친 편식으로 싫어하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려 할 때 영양적인 측면,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더디지만 끝까지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교육방식이 아동학대는 아닐까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유를 설명해주고, 의견을 묻고,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도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그 이유를 직접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곤 했다. 그럴 때마

다 ‘아!! 이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거구나.’ 라는 아이들의 탄식 한마디가 선생님들을 안도하게 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공동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미추홀구의 돌봄 문화

미추홀구는 여성친화도시로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과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미추홀구 여성가족과, 일자리정책과, 아동복지과 등과 함께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돌봄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미추홀구 가족센터가 동일지역 내 위치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설사용 개방 유도로 시설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거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을 연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와의 친밀강화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고민 역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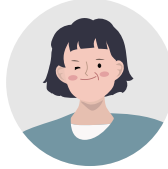
주민공동체 활동의 협동조합 전환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자원(공동육아 나눔터, 마을활동가, 지역의 교육공동체 등)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6개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용하여 미운영시간대(야간, 주말) 틈새돌봄을 시작으로 마을 단위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틈새돌봄을 확산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문제를 주민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민-관 주체 간 협력 강화의 모델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일찍 은퇴한 신중년과 시니어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미추홀구의 특색있는 사회적경제형 돌봄문화가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10월 좀 더 안정적인 공간,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공간, 쿠키클래스와 공유부엌 등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고민도 더 커진다. 더 커지는 고민만큼이나 더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을 것이다.



사업 후기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2014년부터 많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왔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사업으로의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는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어느 누구나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다 똑같은 것이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에 늘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갈망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추홀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혁신지구이기에 지역 교육공동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부모에게는 돌봄에 대한 비용절감을,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지원하고, 해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중간에서 잘 조율하여 아동 돌봄에 사각이 없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미추홀구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년 시범사업의 시작으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 중에 미취학을 벗어나 이제 초등생이 되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2년째 잘 다니고 있고, 돌봄교실은 꼭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성장하는 아이와 함께 돌봄에 종사하는 선생님과 이번 사업을 기획하며 함께 하는 ‘나’ 역시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려고 한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광주 광산구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공동체 '광산형 영구임대 늘행복 건강밥상'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광주 광산구
대표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구성기관	늘행복건강밥상사회적협동조합, 종합사회복지관(송광, 하남, 행복드림)
서비스 대상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만성·중증질환자, 지역주민, 기업 및 단체
서비스 내용	일반인 및 건강 돌봄 대상자 맞춤형 반찬, 도시락 제공

중장년 및 노인층의 높은 인구 비율, 대규모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광산구

광주시 광산구 우산권역은 대규모 영구임대 단지 3,300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중장년층, 노인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1인 가구가 70%,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대가 74.3%,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72.8%로 복지서비스 공급 대비 주민 체감도가 낮아 기존 복지사업의 재평가와 개인별 욕구에 따른 효율적인 서비스 설계와 제공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광산구가 2019년 6월 3,075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는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생계급여는 부족하다(63%)고 나타났다.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건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67% 주민이 월평균 75만원 이하 소득)이라고 답하였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현금지원(43%), 반찬 지원(17%), 돌봄 및 가사 지원 등이라고 하였다.

전수조사에서 조사대상 51%가 우울 증상, 자살 충동 및 시도는 28%로 나타났다. 지역의 주요 문제점으로 고립과 낙인, 사회적 단절,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독거사, 생활비만 자살 등의 문제, 입주민 68%가 월평균 75만원 이하 소득계층으로 1인 가구 최소 필요 생활경비 86만원 보다 적은 상황이라 생활고로 인한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고 생활비의 78%를 식료품비, 주거비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생활비 22%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사회의 문제와 지역주민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필요 서비스인 반찬 욕구를 해결 하되 1인 가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건강식 맞춤형 반찬 및 먹거리 사업과 건강 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지역 문제에 이웃인 주민이 나서다

광주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대표기관을 맡고 광산구 영구임대 늘행복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LH, 주택관리공단,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T, CSR임팩트 그리고 지역 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한술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조리사)과 건강 돌봄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등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요리경험과 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지역주민, 건강 돌봄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우선 모집하였다. 그리고 일거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을 주 구성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주사업인 반찬가게 운영, 전문성 취득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 그후 광산구 우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명,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 3명까지 이렇게 11명과 함께 늘행복건강밥상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초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인 (주)선한푸드앤컬처, (주)NID, ㈜따뜻한친구들, 청년푸드트럭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들과 협력관계를 맺은 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광주(공간 및 자원연계), 광산구자원봉사센터(도시락 배달을 담당해주는 주민 조직),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주민조직화 지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기부금 연계), 우산동 주민자치회,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도움도 받고 있다.



반찬가게 운영 컨설팅



위생관리안전교육

2020년 10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LH로부터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받아 2021년 1월 '늘만찬'이라는 반찬가게를 열었다. 가게를 열고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을 앞두고 있어 명절 음식을 기획·판매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그 이후 관공서, 복지관 등으로부터 도시락 단체 주문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도시락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인근 기업 및 단체 등에 매일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시락 주문이 늘게되면서, 미처 배송 시스템을 준비하기도 전에 시작된 일이라 조합원들이 인근 사무실에 걸어서 배송하기도 했는데,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가까운 거리였지만, 뜨거운 여름엔 도시락을 배달하고 오면 금세 지치는 날들도 많았다.



정기이사회



조합원교육

올해는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반찬 돌봄이 필요한 1인 독거, 고령자 주민 30세대에 24회에 걸쳐 무상 도시락을 제공하였고 1인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교실도 20회 진행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 건강 돌봄 대상자 맞춤형 반찬 및 도시락 제공 서비스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상영양사의 자문을 통한 식단 구성, 영양분석표 작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는 등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산체계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우리 손에서 시작된 건강밥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반찬 및 도시락 판매를 계기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시 서비스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스스로 건강돌봄 체 크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반찬을 판매하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찬가게를 지향하고 있기에 명절 음식 판매, 계절 특별식 판매, 김치류 판매 등 기획 행사도 꾸준히 시도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선호도 높은 음식 및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해가고 있으며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이후에도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반찬가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해 사업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좌충우돌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협동조합 모델로 봉사활동으로 그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었다.

사업 1년차에는 조직화에 집중했고, 2년차인 올해는 조직 재구성 과정 및 유대관계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역량 강화,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운영 훈련(공식적 의사결정과 실행), 차별화 전략 찾기, 생산 프로세스 구축 실험 등 조합과 사업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1개의 프로젝트가 아닌 돌봄, 일자리, 주거, 의료, 공동체 5가지 의제를 다루는 광산구 영구임대 늘행복프로젝트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은 초기 사업이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 기관들이 형성한 '통합돌봄의 네트워크' 역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서툰 우리가 만나 조금씩 성장해가는 협동조합, 넌 참 매력적이야

협동조합을 처음 운영해보고 혼자가 아닌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계획한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과 실행 정도를 확인하는 것, 조합원들 간 호흡을 맞추는 것 등 모든 과정이 힘들었고 때론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로 인해 비록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그 과정은 조합원과 조합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품 생산역량과 전문성 향상, 생산시스템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구조, 협동조합 운영 안정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고정 고객 확보,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개발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성장 등의 과정들도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많은 지역주민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다.



업무협약식



2021년 정기총회

사업 2년차,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러 기관 및 참여 주체(조합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만큼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운영방식에 대해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회의, 월 1회 이사회, 임시/정기총회, 각종 행정업무 등을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며,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사업을 통해 인식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 후기

[늘행복건강밥상사회적협동조합]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업,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들었을 때 막연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거부감도 없었고, 나 자신이 건강을 한번 잃었다가 회복하면서 다시 얻은 인생을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서인지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친정 사택이 광주 대한적십자사였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근무를 하셨고, 어머니는 구호 활동, 고아 지원 등의 봉사 활동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어릴 때 봐왔던 그 풍경이 나도 모르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고 처음 해보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힘이 있다. 순간순간 좌절할 때도 있고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는 날도 있지만, 잘 시작했다는 생각을 100번 했다면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은 5번만 한 것 같다.

가장 힘든 건 조합원들이 사람과 일에 대한 가치를 맞추고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때론 설득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맛있었다, 속이 편하고 부담 없다, 정성이 느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모든 힘듦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절로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시작한 일,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주민의 식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조합원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고 다독여가며 조금씩 성장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마을 공동체 만들기 < 다(多)가치(같이)돌봄 >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광주 북구
대표기관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
구성기관	다가치돌봄사회적협동조합, 큰솔학교지역아동센터, 콩세알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주)레미행
서비스 대상	아동, 부모 등
서비스 내용	아동돌봄(틈새돌봄, 등하원), 가족회복 프로그램

주민과 사회적경제가 만나서 마을의 돌봄을 함께 고민하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첨단 2지구는 신흥개발지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30대~4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맞벌이 가정이 70%이상을 차지하고 그 중 90%이상이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국가의 보편적 보육 지원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희망 인원이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이 우선순위로 되어, 일반 맞벌이 가정은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오후 5시에 종료되어 맞벌이 가정의 퇴근시간과 간극이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오전시간이라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급부족에 더해, 부모들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기에 초창기 돌봄 서비스 수요자인 부모들이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민들과 함께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마을에서 돌보미 선생님을 발굴하다

광주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돌봄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함께 나서 지역 내의 돌봄 의제를 풀어내고자 여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만나 논의를 주도했고, 마을에서 50대~60대 어른들이 돌보미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 돌봄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 내기도 했다. 아이돌봄에 애정이 있는 50대~60대 어른들이 참여한 덕분에 아이들과 빠른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어른들 입장에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함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에 서로에게 윈윈(Win-Win)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학교 내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하여 갑작스레 어린 아이들이 귀가 조치 되는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인근의 돌보미 선생님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사업의 구성기관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큰솔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아이돌봄을 고민하던 공세알도서관, 북구에서 지역 내 청소년사업을 8년째 이어 오고 있던 (주)레미행이 참여하였다. 아이돌봄사업에 함께하면서 단순돌봄을 넘어 진로와 교육 콘텐츠까지 고민하였고, 무엇보다도 틈새돌봄을 할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안정적인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틈새돌봄



(주)레미행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역의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등하원돌봄과 틈새돌봄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과 학교, 지역사회 돌봄의 시간 사이 간극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유·아동에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등하원 시간, 늦은 오후, 저녁시간, 학원사이 시간의 틈새 돌봄을 채워줄 지역 내 안정적인 돌봄 공간이 없다. 이러한 틈새시간에 대한 돌봄사업은 수익이 크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적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의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광주 북구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등·하원 동반 돌봄과 단체 틈새돌봄을 시작했다. 등·하원 동반돌봄은 돌보미 선생님이 부모님의 이른 출근으로 인해 챙기지 못하는 아침식사와 등교 준비를 도와주거나 하교후 지역아동센터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의 틈새시간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보살핌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돌보미 선생님들의 보살핌으로 인해 밝아지고 즐거운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덜게되어 일과 가정 양면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틈새돌봄 사업은 아이들의 학원사이 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틈새돌봄 공간을 찾는 아이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학교에서의 활동이나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보드게임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놀이활동, 매주 사회적기업 레미행을 통한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 신체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돌보미 선생님(지역주민)은 아이들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고민에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홍안전체육놀이



등하원 돌봄



트랜대디 홈캠핑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가정 돌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집에서 놀 수 있는 비대면 홍안전 놀이터를 대여해주는 홍안전 놀이체육 프로그램과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체험형 홈키트 꾸러미, 교육영상을 제공하는 트랜대디 홈캠핑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 돌봄을 해결하고파

복잡한 대도시에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복지관, 지자체 등이 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공동대응한다는 말이 아닐까 한다. 저출산 문제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함께 종합적으로 매듭을 풀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것, 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돌봄을 고민하며 실천해오던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의 돌보미선생님,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 내 돌봄을 위한 다가치돌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의제의 공론화, 인근 학교 사회복지사들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업회의, 돌보미 활동 관련 여성인력개발원과의 연대 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과정이며 시작이다.



부영다함께돌봄센터 방역협업회의



신용초 &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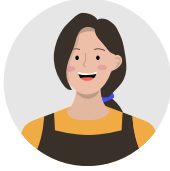
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다가치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사업 후기

[다가치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주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등하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 학교 등원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이미 우리집 아이들을 다 키운터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다. 워낙 아이들도 좋아했고 무엇보다도 집 근처라서 좋았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난다. 그 집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 문을 열었는데 현관부터 거실이며 부엌까지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서 매우 당황했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가며 아이들을 깨우고 준비를 도왔다. 등하원 돌봄을 하러 갔지만 일상생활도 도와줘야 할 상황이었다. 바쁜 아빠와 집에 없는 엄마를 대신해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준비를 도와주며 밥을 먹는 것, 숙제를 하는 것도 도와주었다. 옷도 챙겨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었다. 처음엔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를 하더니 한달도 지나지 않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속 고민도 털어놓은 사이가 되었다. 요즘 삼남매는 안정감을 찾고 학교 수업도 잘 받고 밝아진 얼굴로 지역아동센터도 잘 다니는 걸 보니 굉장히 뿌듯하다.

우리 동네에는 아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졌음 좋겠다. 아이 돌봄이 시장경제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음 좋겠다.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세종시

'여민쿵(與民Coop)'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유형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사업기간	2020년~2021년(2년차)
지자체명	세종시
대표기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구성기관	어울더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꾸물, 미즈자이공동체, 든든공동체
서비스 대상	유아, 초등학생
서비스 내용	(방과후, 학원사이, 저녁) 돌봄서비스, 교육공동체네트워크 사업

아이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마을 돌봄의 시작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정부기관이 차례로 이전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0~40대 젊은 세대, 맞벌이 구성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출산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 대부분이 외지에서 이주해 온 경우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육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이러한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주도로 학교에서는 학교 방과후와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 마을에서는 마을학교나 마을방과후 같은 마을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활용하여 돌봄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예를 들어 학원사이 시간이나 저녁시간 등에도 보낼 수 있는)를 반영한 돌봄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공동체활동을 하고 있던 학부모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울더울공동체는 아파트 도서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녁돌봄을 시작해보자고 했다. 학교 프

로그램 자원봉사를 하던 엄마들의 모임인 꾸물공동체는 상가 밀집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틈새 돌봄을, 든든공동체 대표는 공동육아교사 경력을 살려 공동체와 생태 등을 주제로 아이들의 마음돌보기를 강조하며 부모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미즈자이 공동체는 아이들을 위한 상시돌봄에서 양육자 마음돌봄까지 아우르며 지역 안에서 공동체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살려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돌봄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고자 주민참여형 돌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파트 내 돌봄교실 홍보 현수막



학원사이 돌봄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였지? 그걸 살리자!

세종시참여공동체과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그리고 4개의 주민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미즈자이공동체, 든든공동체, 꾸물공동체, 어울더울공동체가 모여 첫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의논했다. 우선 각 공동체별로 핵심 사업권역을 정하고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하였다. 역시나 저녁 돌봄이나 학원과 학원사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각 공동체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도 진행하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역시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활동부터 시작하니 아이들과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숲체험 활동으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환경 요리수업으로, 성평등교육강사인 사람은 부모 대상 성교육으로 각자의 재능과 경력을 살려서 아이들, 부모들과 함께 하였다. 또 행정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업 회계나 행정실무로, 학교 영양사를 하였던 분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하면 할수록 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쌓여가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많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표기관인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에 체계적인 지원을 보태주었다

마음놀이, 숲밭줄놀이와 같은 우리만의 콘텐츠로

각 공동체들은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돌봄과 나눔’이라는 목적 하에 기본적으로 학교 방과후에 학원과 학원사이, 학원과 집사이 시간에 유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의 저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에 더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 줄 교육활동에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일상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생활교육부터 관계맺기, 공감 및 마음 표현하기, 고민 상담 등 정서적 활동지원이 주가 되는데, 이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방학기간에 더 집중되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자기를 돌보는 위생관리, 정리정돈, 함께 간식을 준비하고 먹고 치우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하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도 함께 배운다. 화를 내는 법도, 설득하는 법도, 친구들과 싸웠을 때 화해하는 법도 배워간다.

연령통합이 이루어지는 놀이활동(전래놀이, 신체활동, 보드게임 등)을 통해 자기조절하기, 소통하기, 규칙 지키기 등을 몸으로 익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숲탐험, 목공, 친환경요리, 창의예술키, 아로마테라피, 공예, 숲 밧줄 놀이터 등)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운다. 특히 숲탐험 활동이나 숲 밧줄 놀이터, 자연탐구놀이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함께 성장하는 어른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혼란을 주었지만 각각의 공동체들은 오히려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도움이 되며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다. 아파트 공동체 어울더울은 단지 내 대표기구인 동대표회의와의 지속적인 논의로 부분적인 지원을 만들어 내며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 든든과 꾸물 공동체는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함께 돌봄과 교육을 고민하고 친환경요리강사, 숲체험 활동가, 공예 활동가, 마음소통놀이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자리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즈자이 공동체는 육아로 지친 엄마들의 편안한 안식처로서, 자신을 돌보고 자기발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실 지난 2년간 우여곡절도 있었다. 함께하던 엄마들 중 마음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각자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좋은 뜻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다보니 일 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의 속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또 말하는 방식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함께 모여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 활동 속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조직은 더 탄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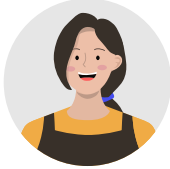
세종 돌봄공동체 네트워크로 세종시만의 특별한 돌봄문화 만들기

올해는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별 공동체들의 다양한 실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주민참여형 돌봄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4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가 함께 『돌봄활동가양성과정』을 개설하여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의 후속모임도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세종시 내 다양한 공적 돌봄체계가 있지만 이렇게 수요자인 부모 입장에서 돌봄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종시 부모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세종시만의 주민참여형 돌봄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형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으로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운 배움을 줄 수 있는 세종만의 차별화된 돌봄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사업 후기

[사회적협동조합 꾸물]



우선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돌봄이라는 지역의 의제를 마을사람들과 또 지역의 다른 공동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많은 의미가 있었다. 더불어 각각의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돌봄컨텐츠를 만들고 체계화시키며 공동체를 넘어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상가 밀집지역의 특성상 부모의 상업활동으로 인해 틈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서 방학동안은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였다. 그렇게 아이들과 하루종일 함께 지내야 했으므로 많이 지치고 힘에 부칠 때도 많았다. 그럴 때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보거나,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때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에서 같이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돌봄공간이 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배움과 편안한 쉼을 주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사례집
“우리 동네 돌봄수요는 우리가 채워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 (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